

여성농민 건강 상태

“농번기에 병원이라니, 꿈도 못 껴요”

대부분 농부증·부인병에 시달려, 의료서비스 확대 시급

충남 서산군 성연면에 사는 농민 이윤자(42)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시작한 논밭일을 오후 2시경에야 일단 마무리한다. 그 사이에 식구들과 일꾼들의 아침 점심을 준비하고 세탁기를 돌려 대중 빨래를 한다. 점심을 먹고 곧바로 3천평의 사과밭에 나가 농약을 뿌리고 나면 어느새 저녁 때가 된다. 식사후에도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집 앞의 밭을 돌보아야 한다. 중3인 딸이 방학 중이어서 약간 일손을 거들기는 하지만 농사일이고 집안일이고 간에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혀 온 어지럼증이 올해는 약간 더 심해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뜻 병원에 갈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당장 길으로 크게 표가 나지 않기에 병원에 가는 것이 왠지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유달리 피곤하고 손발이 저린 증상 또한 더 심해진 것 같지만 특별히 언제 치료를 해야겠다는



농사일과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농촌 여성은 만성피로, 근육골격통,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럼증, 어깨결림 등 여러 증상을 겪는다.

발생하는 질병에 시달린다. 약물 중독, 호흡기·소화기질환, 암, 결핵 등 일반적인 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인병과 시골에 산다는 소외감, 심리적 갈등 및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 분노, 예민함 등의 정신적 증상도 그들에게 찾아온다.

농촌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세는 만성피로와 근육 골격통. 그밖에도 그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만성적인 손발저림, 요통, 어지러움, 어깨 결림 등이다. 이러한 증상은 오랫동안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농부증(農夫症)’의 전형적인 예다.

“딸 넷, 아들 둘을 키웠는데

전 농촌부녀 1백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3일 후에 집안일을 한 여성이 15.2%, 일주일 이후 56.9%, 보름 이후 17.6%, 3주 이후 5.4%, 1개월 이후 0.9%로 나타났다. 일주일 후부터 일을 한 여성이 전체의 72%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보건의학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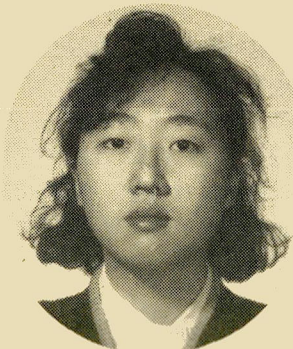


동의 이준고 속에서 각종 질병에

농촌 진료반에 비친 농촌 의료실태

과중한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관절염 가장 많아

김지은/이대의대 의학과 3학년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서울지역 각 의대에서는 농촌의료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 농촌의 의료현실은 병원과 의사가 절대 부족해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과, 과중한 농업노동에 의한 높은 유병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만성병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실제로 7월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던 이대의대 농촌 진료반의 활동을 통해 보면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농민은 없을 정도로 농촌주민의 대다수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농민의 경우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 노동의 고령화, 여성화로 여성농민이 과중한 농업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농촌에서는 자영이든 소작이든 경지면적을 넓혀 나가게 되는데 이는 농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노동강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농촌생활 깊숙히

남아 있는 봉건적 이념으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여성만이 전담하게 됨으로써 여성농민의 생활은 더욱 설 틈이 없고 힘겨워지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속에서 농촌여성의 가장 압도적인 질병양상은 관절염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진료소를 찾는 농민의 30%정도가 요통과 관절통을 호소하였고, 여성 농민의 경우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많았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 나타날 수 있는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농촌에서는 나이뿐 아니라 농업노동의 특성속에서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질환이 되어

버린 상태다. 즉 쭈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일의 자세가 원인인데 허리 한번 제대로 펴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노동강도가 큰 문제다. 진료반에서는 바른 자세와 적절한 체조, 운동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 드리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요통체조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아주머니들께서는 무척이나 좋아하시며 앞에 나와 스스로 배운 것을 시범을 보이시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배움이 불건강의 폭염 속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자리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또 하나의 질병 양상은 임신·출산·폐임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산전·산후관리의 소홀함으로 인한 감염과 후유증, 그와 더불어 폐임과 인공유산에 의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다. 진료소를 찾은 한 아주머니는 10여년 전 보건소에서 폐임법으로 자궁내장치(IUD)를 시행했는데 최근에 저절로 빠져나오길래 손으로 꺼냈다는 이야기를 아무

렇지도 않게 해서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산아제한정책의 일환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되었던 폐임시술은 인공유산 때문에 생기는 여성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방지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세웠으나 산아제한의 목적성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에 의해 많은 농촌 아주머니들이 자궁내장치를 하고 나서는 한번 체크해보는 일 없이, 또한 그 이후 밝혀진 자궁내장치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책에서 읽은 의료의 식민지적 현실 - '미국에서 개발된 자궁내장치(IUD)를 한국, 콜롬비아, 이란 등지에서 큰 규모로 임상실험을 했다' - 을 새삼 실감하게 하였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접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 전면개방의 소식은 그곳 아주머니들에게는 굶은 날씨보다 더욱 관절통을 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름의 경험을 통해서 피해한 농촌현실의 극복만이 흠과 함께 하는 노동의 건강함을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큰 딸은 출가하고 나머지 딸은 도시로 나가 공장일을 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아홉살이예요. 농사 품은 남편과 둘이서 하더라도 살림을 거들 사람은 전혀 없어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애들 여섯을 낳도록 한번도 출산 후 3일 이상 몸조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해대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습시다. 갈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 요즘엔 진통제를 사 먹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일을 해요."

전남 함평군 신광면에서 1천5백평의 밭과 소작을 부치는 영세 농 주부 김순자(46) 씨의 얘기다.

가사일과 농사일까지 겸하는 과다한 노동량 이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무리와 인식부족도 여성농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결혼 후 한두 번 임신 중절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임신이 큰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출산 전에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게 예상과 의사나 조산원 없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의 도움을 빌어 아기를 낳는다. 출산 후 휴식을 취하는 기간은 보통 보름 정도. 이것도 농사일에 한해서 집안일은 출산 일주일 후부터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집안일을 돌볼 식구가 따로 없거나 농사일손이 부족하면 며칠도 쉬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가톨릭농민회가 몇해

서에는 가벼운 가사일을 할 수 있는 때가 혈성으로(血性惡露)가 정지되는 3주 이후, 정상적인 노동은 6주가 지난 후부터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거의 생물학적 기본조차 무시된 채 행해지는 농사일 때문에 농촌여성들은 요통, 신경통 등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게 된다.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정도로 해결해요.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참는 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병원에 갔다 오려면 만나절은 꼬박 걸릴텐데 요즘같은 농번기에 꿈이나 꿀 수 있겠어요?" 이윤자 씨의 말처럼 농촌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한다.

그러나 남편이나 자녀가 자신과 비슷한 정도로 병을 앓게 될 경우 참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족의 건강에는 관심을 쏟으면서도 자신의 건강은 희생시키는 게 그들의 실정인 것이다.

농촌여성들의 이같이 열악한 건강상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의 박정은 씨는 △모성보호와 여성의 건강관리가 가족과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임을 인식하도록 농촌지역의 건강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사노동의 공동참여,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여성노동부담을 줄여 줄 것,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창희 기자)